

## APOSHO 의장 안전협회 방문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 APOSHO(Asia Pacif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의 말레이시아 압둘라만달린 의장은 안전협회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을 통해 안전협회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고, 상호 업무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국내 취업 합법화 방안을 위한 안전협회와 업무협력에 대해서도 서로 돕기로 하였다.

## 산업재해예방기관 간담회 개최



지난 10월 14일 안전공단(김용달 이사장) 주관 하에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산업재해예방기관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안전보건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홍지 회장을 비롯해 윤임중 보건협회 회장 등 안전보건, 건설, 학회관련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홍지 회장은 “산업안전관련 규제완화는 타 규제완화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며 “안전분야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의 법적인 강제성도 수반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회장의 김용수 회장은 “선별적이지 못한 규제완화가 재해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완화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종합안전컨설팅 마쳐



월 17일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안전협회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의장라인 운반설비에 대한 종합안전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5월 12일부터 5개월동안 실시한 이번 컨설팅에서는 기계분야, 전기분야의 공학박사 4명과 기술사 2명, 담당기사 2명이 투입되어 Min 컨베이어 27 Item, PBS 컨베이어 21 Item, 도아리 컨베이어 1Item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제작시 감리, 시공시 감리, 시운전, 안전진단 등에 대해 수행한 이번 종합안전컨설팅은 지난 10

## 안산지회, 산업안전정책 특별 세미나 개최



계 격려금을 전달했다.

안전협회 안산지회(채수현 사무국장)는 지난 9월 30일부터 3일간 울릉도 울릉호텔에서 관할 지역 안전관계자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정책 특별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세미나 개최와 더불어 채수현 사무국장은 이홍지 회장을 대신하여 울릉도 군부대를 방문하고, 국군의 날 축하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지역의 피해복구에 노고가 많은 장병들에

## 제3차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인간공학 연구과정 실시



안전협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4일간 강원도 오색그린야드 호텔 연수장에서 “제3차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인간공학 전문가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등 안전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교육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법 이해와 이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적용할 안전활동 등을 습득케 하고, 작업장에서의 위험요인 평가기법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예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노사간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 서울지역 안전인 체육대회 개최



안전협회 서울지회(윤경채 사무국장)는 지난 10월 16일 가리봉동 시민운동장에서 정부 노동관계자와 관할 지역 안전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3회 서울지역 안전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을 비롯해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과 정수복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손정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관악, 강남·남부, 서부, 동부·북부 4팀으로 나뉘어 2인

3각, 족구, 계주, 축구 등의 종목으로 맑은 가을하늘 아래 운동장을 달렸다.

한편, 서울지역의 안전인이 한자리에 모여 무재해를 다지고,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내년부터는 노동부도 한팀이 되어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협회 안전보건 우수사업장 견학 줄이어



▲ 부산지회



▲ 대구지회



▲ 진주지회

### 부산지회 · 대구지회 · 진주지회

최근 안전협회는 각 지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산업현장 견학이 한창이다. 지난 10월 17일에는 부산지회(김성철 사무국장) 소속 안전관계자인 (주)대우인터내셔널 황기준 차장 등 50여명이 광주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광주 삼성 전자를 방문하고, 광주 전남지회 관할 지역 안전관계자와 축구, 족구, 배구 등 친선 경기를 하였다. 이는 영호남 안전 관련 정보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구지회(성기철 사무국장)의 소속 안전관계자 60여명도 2일간 강원도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주)두산 주류 강릉공장을 방문하였다. (주)두산 주류 강릉공장은 2002년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한편 10월 21일, 진주지회(정준수 사무국장)는 남양도기(주) 정남신 전무이사 등 30여명의 안전관계자와 함께 한국남동발전(주) 무주양수발전소를 찾아 다양한 안전활동과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협회는 직원의 견문을 넓혀주고자 **안전협회와 직원 해외산업시찰 키져** 차로 출발한 이번 해외연수팀은



최근 동북아시아대를 맞이하여 중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 때, 중국의 산업시설과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